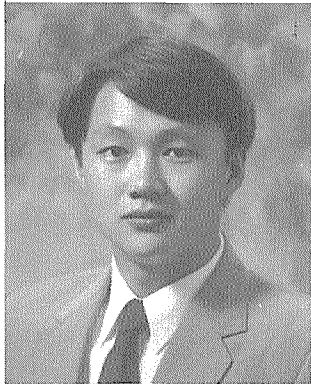


원유도입정책



김 성 호
 <상공자원부 원유과 화공사무관>

I. 최근 국제석유시장 동향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최근 국제석유시장은 걸프사태 이후의 시장안정 분위기가 지속되어 석유수급 및 유가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1993년 1/4분기의 경우 계절적 성수기 임에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석유수요가 소폭증가(1992년 4/4분기 대비 10만B/D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 1월 유엔의 이라크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둘러싼 미-이라크간의 갈등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7차에 걸친 대이라크 공습에도 불구하고 유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등은 최근의 석유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지난 2월 OPEC 감시위에서의 1백만B/D 감산합의 및 OPEC 회원국들의 감산준수 의지표명

최근 국제유가 추이

(단위 : \$/B)

	1992. 평균	1992. 1월	2월 (A)	3월	4. 16(B)	등락(B-A)
Dubai	17.18	15.20	15.98	16.34	16.23	0.25
Oman	17.70	15.75	16.73	17.13	17.21	0.48
Brent	19.32	17.34	18.45	18.74	18.65	0.20
W. T. I.	20.57	19.03	20.01	20.35	20.14	0.13

'93년 세계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1992 평균	1993. 1/4	1993. 2/4	1993. 3/4	1993. 4/4	1993 평균
수 요	67.0	68.0	65.9	66.4	69.6	67.5
非OPEC 공급	42.9	42.4	41.9	42.0	42.6	42.2
對OPEC 원유수요	24.1	25.6	24.0	24.4	27.0	25.3

〈자료〉 IEA 석유시장 보고서('93. 2월말)

등으로 2월이후 국제유가의 소폭 상승세가 이어지긴 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실질적인 유가의 상승을 의미하기 보다는 지난해 4/4분기 이후의 유가약세가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2. '93년 국제 석유수급 및 유가 전망

1993년 세계 석유수요는 3.1%의 세계경제성장 전망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50만B/D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미국과 CIS의 생산감소 등으로 인한 非OPEC 공급감소(약 70만B/D)에도 불구하고 OPEC는 사우디·이란 등의 공급능력 증대에 따라 수요 이상의 여유공급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상반기의 국제유가는 OPEC의 2/4분기 생산상한 감축결정과 회원국간의 자국쿼터 준수 움직임 확산으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유가수준(Dubai 기준 16\$/B)이 유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3년 하반기의 국제유가는 동기간 중으로 예상되는 이라크의 수출재개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등 적절한 대응조치와 성수기 진입에 따르는 수요증대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1\$/B 내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

따라서 1993년 국제유가는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1992년과 비슷한 수준(Dubai 기준 17.198\$/B)의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석유시장은 걸프 사태를 계기로 OPEC내의 영향력이 확대될 사우디 등 GCC 온건 산유국들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유가의 단기적 급등보다는 수요의 지속적 증대를 유발할 수 있는 안정적 유가수준을 선호하는 등 시장안정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걸프사태 및 구조련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신국제질서의 핵으로 등장한 미국 및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탄소세를 포함한 환경

규제 등도 간접적으로 국제 석유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소비국간의 관계는 걸프사태후의 새로 와진 신국제질서를 배경으로 상호 대립보다는 동반자 관계로의 이행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산유국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소비국의 자금과 기술지원 및 판로확보를 위해 소비국 하류부문 진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소비국은 산유국 상류부문의 지분확보를 통한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의 산·소비국 협력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II. 국내 원유도입 현황

1. '92년도 원유도입 현황 총괄

1992년도 총 원유도입량은 석유내수용 증가(전년대비 22.2%) 및 석유제품 수출급증(전년대비 30.8%)과 정제시설 확충에 따른 원유처리량 급증 등에 힘입어 509.4백만B로서 전년대비 27.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중 장기계약은 전체의 67.9%로서, 안정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원유도입 단가는 FOB기준 17.79\$/B로서 세계 석유시장의 저유가체제와 수급안정에 따라 전년대비 4.1% 감소하였으며, 총 원유도입 금액은 평균도입단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도입물량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22.3% 증가한 90억6천4백만달러(FOB기준)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금액 7백73억달러(국제수지기준)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도의 9.7%보다 2% 포인트가 높아짐으로써 국제수지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소비

원유도입실적 총괄

(단위 : 백만B, \$/B, 백만달러, FOB)

			1991		1992		증 감 (%)
				%		%	
장 기 계 약	물 량 단 가 금 액		261.9	65.6	345.7	67.9	32.0
			18.57		17.58		
			4,862		6,079		
현 물	물 량 단 가 금 액		137.2	34.4	163.6	32.1	19.1
			18.53		18.24		
			2,546		2,985		
소 계	물 량 단 가 금 액		399.3	100	209.4	100	27.6
			18.55		17.79		
			7,408		9,064		
합	물 량		399.3		509.4		27.6
	단 가	FOB	18.55		17.79		-4.1
		C&F	19.59		18.54		-5.4
		CIF	19.62		18.55		-5.5
계	금 액	FOB	7,408		9,064		22.3
		C&F	7,824		9,442		20.7
		CIF	7,836		9,449		20.6

<주> 지분원유는 장기계약에 포함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제고와 국내석유 수요 증가요인의 억제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유질별 원유도입을 살펴보면 중질유 도입(2억2천6백만배럴) 비중이 전년대비 5.9% 포인트 증가한 44.4%, 또한 고유황 원유도입(2억7천2백만배럴) 비중도 전년대비 2.0% 포인트가 증가한 53.4%를 보였다.

이러한 중질유 및 고유황유의 증가는 정유사들의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설비의 증설로 인해 이에 적합한 중동산 원유도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저유황원유의 수요는 늘어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

급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상기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의 설치를 계속 추진하여 저가의 중질원유도입에 따른 국제수지부담 완화 및 원유유종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2. 지역별·국가별 도입 비중

1992년 중동의존도는 걸프사태이후 중단된 바 있는 쿠웨이트산 원유도입의 재개 등으로 전년대비 1.0%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동남아·미주 지역의 의존도는 소폭 감소하였고, 아프리카지역의 의존도는 알제리와의 신규장기계약 체결 등 도입선 다변화에 힘입어 전년대비 1.1% 포인트 증가하였다.

지역별 도입비중

		1991년		1992	
		물량(백만B)	구 성 비(%)	물량(백만B)	구 성 비(%)
중 동		294.4	73.7	380.5	74.7
동 남 아		82.7	20.7	95.0	18.7
미 주		16.7	4.2	21.1	4.1
아 프 리 카		5.6	1.4	12.8	2.5
계		399.3	100.0	509.4	100.0

국가별 도입순위

(단위 : 백만배럴)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합 계
1991	국명	사우디아라비아	이 란	오 만	U. A. 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20개국
	물량	133.6	52.8	51.2	46.1	33.4	26.1	12.8	399.3
1992	국명	사우디아라비아	오 만	이 란	U. A. E.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24개국
	물량	155.1	73.7	61.3	53.2	38.0	25.5	19.2	509.4

'93년 원유도입 전망

	1992	1993(전망)	
		증 감 %	증 감 %
도 입 량(백만배럴)	509.4	27.6	563.4 10.6
도입단가(FOB, \$/B)	17.79	-4.1	17.80 0.06
도입금액(CIF백만달러)	9,449	20.6	10,480 10.9

또한 국가별 원유도입 현황을 보면 걸프사태 이후 장기계약 물량이 급증한 바 있는 사우디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국내 전체 도입량의 30.5%에 달하는 155.1백만배럴의 도입으로, 작년에 이어 도입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이 오만(14.5%), 이란(12.0%), UAE(10.4%), 인도네시아(7.5%) 순으로 상위 5개국의 의존도가 전체 원유도입의 7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국수에 있어서는 총 24개국으로 원유수입 이후 가장 많은 나라로부터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은 중동 8개국, 동남아 8개국, 미주 3개국, 아프리카 5개국으로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앙골라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수입재개가 이루어졌다.

3. '93년 원유도입 전망

1983년 석유수요는 경제성장률(6~7%)을 다소 상회하는 전년대비 11.8% 증가한 572,434천배럴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원유도입물량은 전년보다 10.6% 증가한 5억6천3백40만배럴이 도입될 전망으로 1992년의 27.6%에 비해 원유도입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유도입금액도 전년대비 10.9% 증가한 1백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Ⅲ. 원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주요시책

1. 중동대비 추가운송비 지원제도 지속추진

제1, 2차 석유위기와 같은 중동지역에 상존하는 정정불안에 대비, 중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원유도입선을 비중등으로 분산·다변화하기 위하여 지난 1982년 3월부터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주·아프리카지역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도입되는 원유에 대하여 중동대비 추가운송비를 보전하여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이전인 1980년의 99%에서 다변화 추진이후인 1983년에는 74.1%, 1987~1988년에는 6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년평균 20%가 넘는 석유소비증가를 및 1990년 대비 2배가 늘어난 정제능력 확충으로 인하여 중동산 원유도입 의존도가 다시 75%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이 적극 요망되고 있다.

이에 우선 현재 지원하고 있는 중동대비 추가운송비 보전 지원제도를 금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금지원에 의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추진은 그 효과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지원제도 이외에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동산유국의 석유매장량, 생산량 및 수출량을 볼때 원유도입의 중동의존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지역별 장기 적정도입목표를 중동지역 65%, 동남아시아 25%, 미주·아프리카지역 10%로 설정하여 중동의존도의 분산·다변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국제시장의 동향에 따라 장기계약과 현물도입을 적절히 조화

제2차 석유위기 전까지의 석유시장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체제로서 우리나라는 원유수입의 100%를 메이저에 의존하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 OPEC 결속력 약화에 따른 세계 석유수급 사정의 공급과잉 상태로 현물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80년대 후반까지는 저가의 현물구입 비중을 점차 확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예상되는 석유위기 및 1990년 8월의 걸프사태 영향에 따라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비중이 60~70%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현물원유 도입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도입계획물량의 40%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포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60~70%로 장기계약도입비중이 유지되도록 원유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3. 러시아 등 북방지역 원유도입방안 강구 및 자주개발 원유도입증대 추진

러시아로부터 원유도입은 1990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사할린산 원유로서 우리나라 연간 전체도입의 약 0.3% 수준인 극히 적은 물량이 트레이더를 통하여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의 러시아 국내시장과 원유생산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량과 수출량 감소 등으로 러시아와 직접적인 원유도입 교섭추진과 도입물량 증대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1992년 발족된 「한·러 자원협력위」를 통하여 우선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원유도입에 따른 제반 사전검토사항 협의와 아울러 우리나라와 수송거리가 짧은 극동지역(사할린)의 원유도입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러시아극동지역 석유·가스개발사업 참여등 국내대륙붕 및 해외유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주개발 원유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산유국과 지속적인 외교를 통한 유대관계 강화

걸프사태이후 산유국·소비국간의 첨예한 대립과 경쟁체제 보다는 화합과 협력체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의 장기 안정적 수요·공급선 확보 및 공동이익 도모를 위한 협력관계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에는 주요국간의 방문·초청 뿐만아니라 주한 외국 대사관과의 유대강화, 해외 주재 자원관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국제협력업무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외교활동과 연계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관 공동으로 국제석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5. 석유비축사업의 추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역할분담을 위한 OECD 가입이 멀지 않았으며, 따라서 OECD의 가입과 동시에 그 산하의 IEA의 가입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바, 장기적으로 IEA 비축목표인 90일분의 저장시설 및 물량확보가 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비축목표는 전년도 석유 소비량의 90일 수준(정부 60일, 민간 30일)으로서, 1993년 3월말 현재 정부 비축량은 석유 4천만배럴(28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위기관리능력 확보 및 세계 비축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비축 목표수준에 미달된 시설 및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까지 7개의 비축기지 추가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비축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도 수립 추진중에 있다. ♣